

# 호위대 모델에 기초한 한국 중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한국 중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46-65세의 성인 남녀(315명)를 3개의 연령집단(40, 50, 60대)으로 구분하고 일대일 면접을 사용하여 호위대 구성원의 수와 내용을 측정하였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호위대의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의 크기에서 그리고 각 원의 구성원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애착기능을 하는 인물은 누구이고 내부원은 애착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호위대 전체 크기는 생활만족과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60대는 450대보다 더 작은 크기의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을 가지고 있었고, 450대에서는 성별에 따라 호위대 크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내부원은 주로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고 중간원과 외곽원은 형제자매와 친구 및 직장동료를 포함하였으나 외곽원은 중간원보다 더 다양한 친인척을 포함하였다. 배우자와 자녀 및 친구는 내부원의 핵심적 구성원들로서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기능, 분리저항기능 및 안전기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원은 애착관계임이 분명하였다. 또한 60대는 450대보다, 60대 내에서는 호위대가 클수록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여 생활만족은 호위대 크기에 의해 효과적으로 예측될 수 있었다.

주요어: 중년기, 사회적 관계, 애착, 호위대, 생활만족

우리는 일생동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 그 중 일부의 사람들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소수의 사람들과는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괴로움의 시기에 위안을 얻고 일생 동안 심리적 안정의 기저를 구축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경험하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크기와 기

능은 시간 경과와 함께 변화하고, 변화된 관계는 매 발달단계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과 함께 노부모 돌보기 역할이 첨가되고 그 외에 시부모 역할과 장인장모 역할 및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중년기 동안의 애착관계

---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와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 동시에 그것들이 심리적 안녕의 중요한 지표인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한다.

개인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Kahn과 Antonucci(1980)의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이 있다.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 모델은 세계의 동심원으로 구성되며, 동심원의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각각 내부원(inner circle)과 중간원(middle circle) 그리고 외곽원(outer circle)을 포함한다. 3개의 동심원은 모두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각기 다른 수준의 가까움을 나타낸다. 그 중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개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하고, 중간원은 내부원의 구성원들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외곽원은 내부원과 중간원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가깝고 충분히 중요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포함한다(장휘숙, 2006a).

그러나 호위대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돕거나 방해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개인과 함께 변화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호위대의 크기와 호위대 속에 포함된 구성원들도 함께 변화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8세부터 93세까지의 개인들을 7개 연령집단(8-12세, 13-19세, 20-39세, 4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으로 구분하여 호위대 구성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Antonucci와 Akyama 그리고 Takahashi(2004)는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크기는 물론 각원에 포함된 구성원들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내부원의 크기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가까운 관계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년

의 성인들(40-59세)은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속에 노인(60-79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 내부원에는 배우자와 아들 딸 및 어머니를, 중간원에는 형제자매와 친구를 그리고 외곽원에는 친구를 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인생초기의 배타적인 어머니-아동간의 애착관계는 아동초기까지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 다른 친인척 등으로 확대되고 아동중기부터 성인기까지 동성 및 이성친구,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등으로 그리고 더 이후에는 며느리나 사위를 포함하여 손자녀까지로 확장되기 때문에 애착관계를 포함하여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부원의 구성원들이 과연 개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인가이다. Kahn과 Antonucci(1980)는 세 개의 동심원 중 내부원의 구성원들을 애착관계로 규정하고 애착대상인 양육자가 안전기지가 되어줌으로써 영아가 마음놓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 동일한 안전기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호위대 모델은 내부원 구성원들을 측정할 때 개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측정하였을 뿐 Bowlby(1988)가 제안한 애착의 본질인 '필요의 시기에 보호와 위안을 얻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Bowlby의 주장대로, 애착관계의 특성과 기능은 영아기와 성인기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면, 연령증가와 함께 애착대상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애착대상의 기능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부원 구성원들이 개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성인중기 동안에도 애착인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Hazan과 Zeifman(1994)는 애착의 기능을 4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즉 애착인물과의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근접추구(proximity seeking) 기

능과 애착인물과의 분리에 저항하는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 기능, 애착인물의 존재시에 마음놓고 탐색할 수 있는 안전기지(secure base)의 기능 그리고 위협을 지각하면 탐색행동을 멈추고 애착인물로 후퇴하는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의 기능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4가지 구성요소들은 영아의 행동에서 쉽게 관찰된다. 영아는 보호와 위안을 얻기 위하여 애착인물에게 접근하고(근접추구) 애착인물과 분리되면 저항행동을 나타내지만(분리저항) 애착인물이 존재하면 마음 놓고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안전기지). 그러나 주변 환경이 위협하다고 지각되면 영아는 탐색행동을 멈추고 재빨리 애착인물로 되돌아간다(안전한 피난처). 6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연구한 Hazan과 Zeifman(1994)의 연구에 의하면, 표본 속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근접추구에서 또래지향적이었고 부모보다는 오히려 또래집단과 시간을 보내기를 더 좋아하였다. 또한 또래는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하였고 위안과 정서적 지원의 근원으로서 부모보다 더 많이 선호되는 인물이었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분리저항의 목표로서 그리고 안전기지로써 기능하였다. Hazan과 Zeifman(1994)의 후속분석에서는 청년후기는 낭만적 파트너가 부모를 대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애착인물의 기능과 역할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azan과 Zeifman의 주장대로 애착관계의 기능이 영아기와 성인기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면 중년기 동안 4가지 애착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은 분명 아동기나 청년기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관심 갖는 또 다른 문제는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 크기(수)와 생활만족의 관계이다. 호위대 모델은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므로 호위대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은 더 큰 생활만

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Carstensen(1998)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은 정서적 만족을 중요시하므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정서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임으로써 정서적 위협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호위대 구성원의 수는 감소할 수 있지만, 생활만족도 함께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애착관계와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중년기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의 크기(수)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애착의 네 가지 기능 즉 근접추구와 분리저항, 안전한 피난처 및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내부원의 구성원들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호위대 전체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중년기는 46세부터 65세까지로 규정되므로(장휘숙, 2006b 참조), 이 연령의 남녀 성인들이 표집되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거나 일부 문항을 누락한 사람 혹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5명(남성 155명, 여성 16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3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례수와 평균연령(괄호 안은 표준편차)을 제

표 1.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례수와 평균연령 (표준편차)

성별	연령집단	N	M(SD)
남성	40대	50	47.50(2.735)
	50대	54	53.31(2.655)
	60대	51	62.51(1.713)
	전 체	155	53.82(7.303)
여성	40대	52	46.48(2.532)
	50대	51	52.53(2.053)
	60대	57	62.67(1.640)
	전 체	160	53.20(8.215)
전체	40대	102	46.98(2.810)
	50대	105	52.93(2.403)
	60대	108	62.59(1.669)
	전 체	315	53.30(7.774)

시하면 표 1과 같다.

자료는 1대1의 면접방식을 사용하여 수집되었고, 5명의 면접자는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받은 발달 심리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이었다. 면접은 2010년 3월 말부터 5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면접지역은 인구 약 150만의 대도시로 한정되었다. 면접이 이루어진 장소는 중년 성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찜질방이나 헬스센터, 공원, 여성복지회관 혹은 연구대상자들의 집이었다. 연구대상자들 중 40대 남성의 100%와 50대 남성의 90.7% 그리고 60대 남성의 82.4%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40대 여성의 82.7%와 50대 여성의 45.1% 그리고 60대 여성의 17.5%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보조금을 받아야할 정도의 극빈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은 포함되지 않았다.

## 측정도구

### 호위대 크기와 구성원 측정

Kahn과 Antonucci(1980)의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을 사용하여 호위대 크기와 내부원,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을 구성하는 인물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가운데 원 속에 '본인'이라고 쓰여 있고 차례로 세 개의 동심원이 그려진 그림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을 생각해보게 한 다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내부원 속에는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써넣도록 하였다. 중간원에는 내부원에 써넣은 사람보다는 덜 가깝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을 적도록 하였고 외곽원에는 두개의 원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자신의 삶에서 가깝고 충분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호위대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세 개의 동심원 각각에 기록된 사람의 수를 계산하였고, 3개의 동심원에 기록된 사람의 수를 합산하여 호위대 전체 크기로 계산하였다. 호위대 구성원은 세 개의 동심원 속에 포함된 인물들을 조사하였다.

### 애착의 기능 측정

애착의 기능 중 근접추구 기능,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그리고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하여 Hazan과 Zeifman(1994)이 사용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즉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가?”(근접추구 기능),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들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가?”(안전한 피난처 기능), “당신은 누구와 떨어져 있기를 가장 싫어하는가? 떨어져 있는 동안 가장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분리저항 기능) 그리고 “당신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안전기지 기능)를 질문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단 한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고 본인과의 관계를 기록하게 하였다.

**생활만족 척도**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5개 문항의 생활만족 척도가 사용되었다. 전체적 생활만족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응답자 자신의 표준에 기초하여 현재의 생활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문항 예: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은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서의 높은 점수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확인된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4였다.

**결 과**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호위대 구성원의 수**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호위대 구성원의 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표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 구성원의 수의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 집단	N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		
			M(SD)			M(SD)			M(SD)		
남성	40대	50	4.22(2.102)			4.70(2.350)			3.54(2.448)		
	50대	54	3.30(1.609)			3.35(2.748)			3.20(2.452)		
	60대	51	2.69(1.606)			3.24(1.829)			2.39(1.930)		
	전 체	155	3.39(1.878)			3.75(2.625)			3.05(2.700)		
여성	40대	52	3.21(1.613)			3.54(2.279)			2.27(1.418)		
	50대	51	3.76(2.094)			4.27(2.546)			4.08(2.134)		
	60대	57	2.89(1.030)			2.79(1.319)			2.44(1.323)		
	전 체	160	3.28(1.648)			3.51(2.166)			2.91(1.139)		
전체	40대(a)	102	3.71(1.927)			4.11(2.681)			2.89(1.021)		
	50대(b)	105	3.52(1.866)			3.80(2.680)			3.63(2.334)		
	60대(c)	108	2.80(1.331)			3.00(1.589)			2.42(1.630)		
	전 체	315	3.30(1.763)			3.63(2.402)			2.97(2.428)		

표 3.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 구성원 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F값	Tukey 사후검증
내부원 구성원 수	성별	.332	
	연령집단	8.762***	a, b > c
	성별 x 연령집단	5.542**	
중간원 구성원 수	성별	.753	
	연령집단	6.341**	a, b > c
	성별 x 연령집단	5.352**	
외곽원 구성원 수	성별	.193	
	연령집단	7.290***	b > c
	성별 x 연령집단	5.456**	

\* $p < .05$ , \*\* $p < .01$ , \*\*\* $p < .001$  이하 동일함

집단(40대, 50대, 60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호위대 구성원의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 각각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구성원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3은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부원 구성원의 수에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집단의 주효과( $F(2,309)=8.762, p<.001$ )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F(2,309)=5.542, p<.01$ )가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40대와 50대가 60대보다 더 큰 점수를 얻고 40대와 50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450대는 60대 성인들보다 더 많은 내부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림 1에 제시된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대 남성들은 40대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내부원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t(100)=2.724, p<.01$ ), 50대와 60대 집단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간원 구성원의 수에서도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집단의 주효과( $F(2,309)=6.341, p<.01$ )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F(2,309)=5.352, p<.01$ )가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40대와 50대가 60대보다 더 큰 점수를 얻고 40대와 50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40대와 50대는 60대보다 더 많은 중간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림 2에 제시된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대( $t(100)=2.230, p<.05$ )와 50대( $t(103)=1.782, p=.058$ )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였으나 60대 남녀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40대 남성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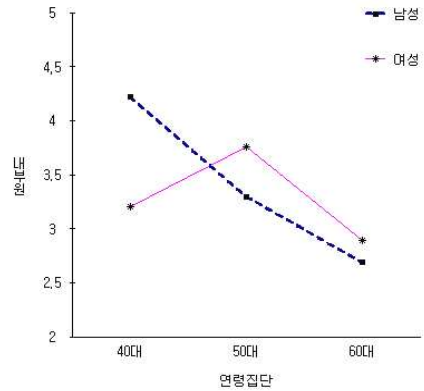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 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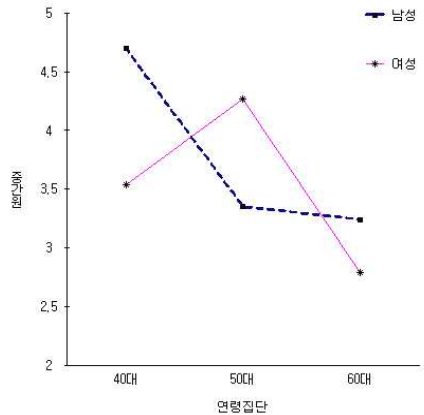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중간원 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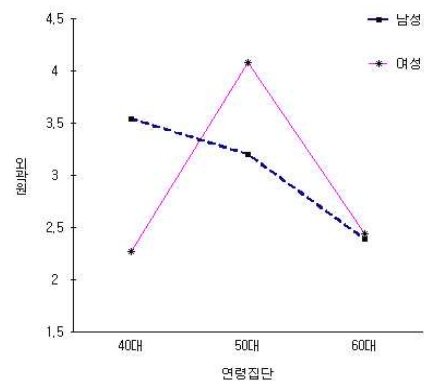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외곽원 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여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중간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고 50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적은 수의 중간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외곽원 구성원의 수 역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집단의 주효과( $F(2,309)=7.290$ ,  $p<.001$ )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F(2,309)=5.456$ ,  $p<.01$ )가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가 60대보다 더 많은 수의 외곽원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림 3에 제시된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60대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40대( $t(100)=2.162$ ,  $p<.05$ )와 50대 ( $t(103)=1.945$ ,  $p=.055$ )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40대 남성들은 40대 여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50대 남성들은 50대 여성들보다 더 적은 수의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 1, 2, 3을 비교해보면 남성들은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모두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 구성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 반면, 여성들은 40대와 비교하여 50대에 증가하고 60대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호위대 구성원에서의 차이

### 1) 내부원 구성원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의 구성원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 개의 동심원 각각에 응답된 인물들을 반응빈도가 높은 순서로 5명씩 선택하고 각 인물에 대한 반응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4a,b,

5a,b 그리고 6a,b에 제시된 바와 같이 40대 남성은 내부원 구성원으로 아내, 자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 순으로 응답하였고 40대 여성은 자녀, 남편,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 순으로 보고하였다. 50대 남성은 내부원 구성원으로 아내, 자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 순으로 보고하였으나 50대 여성은 자녀, 남편, 아버지/형제자매, 어머니, 손자녀 순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60대 남성은 내부원 구성원으로 아내, 자녀, 손자녀,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 순으로 그리고 60대 여성은 자녀, 남편, 형제자매, 친구, 사위/며느리 순으로 보고하였다.

흥미롭게도 40대, 50대, 60대 모두 내부원 구성원으로 남성은 아내를 그리고 여성은 자녀를 보고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내부원 속에 손자녀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여성은 50대, 남성은 60대였으며 60대 남녀의 내부원 속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하였다. 또한 450대, 60대 여성 모두 내부원 속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였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40대 남성에서만 형제자매를 포함하였고 어머니는 40대 남녀와 50대 남녀 그리고 60대 남성의 내부원 속에만 그리고 아버지는 40대 남녀와 50대 남녀의 내부원 속에만 나타났다.

### 2) 중간원 구성원

그림 4a,b, 5a,b 그리고 6a,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0대 남성은 중간원 구성원으로 형제자매, 친구, 직장동료,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순으로 보고하였고 40대 여성은 형제자매, 어머니, 친구, 아버지, 자녀/시아머니 순으로 보고하였다. 50대 남성은 중간원 구성원으로 친구, 형제자매, 자녀, 직장동료/어머니, 아버지/장모 순으로 그리고 50대 여성은 형제자매, 친구, 어머니, 자녀, 아버지/조카, 율케 순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60대 남성은 중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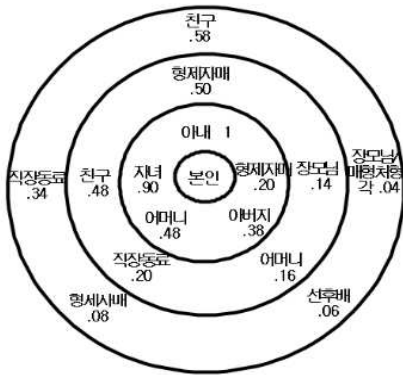


그림 4a. 4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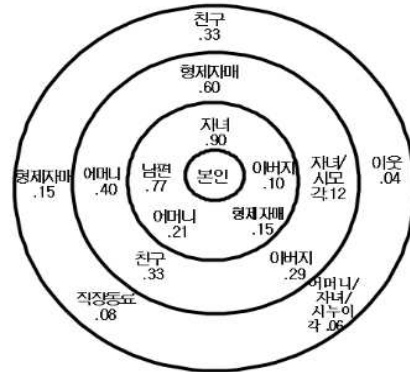


그림 4b. 4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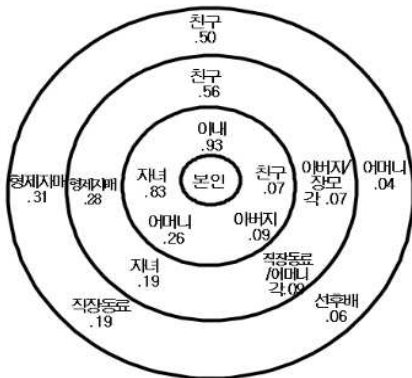


그림 5a. 5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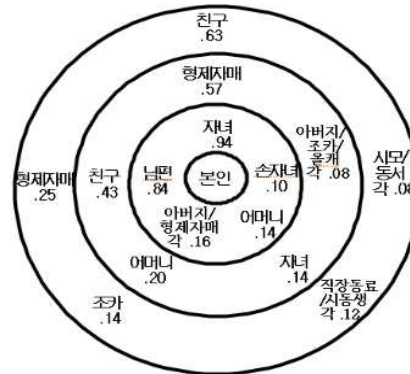


그림 5b. 5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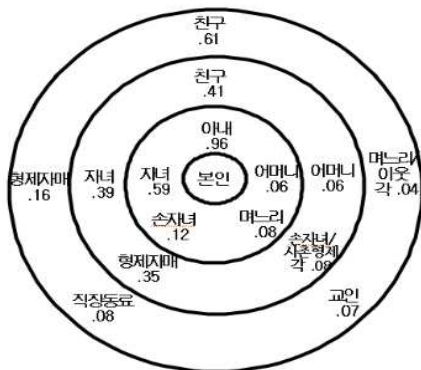


그림 6a. 6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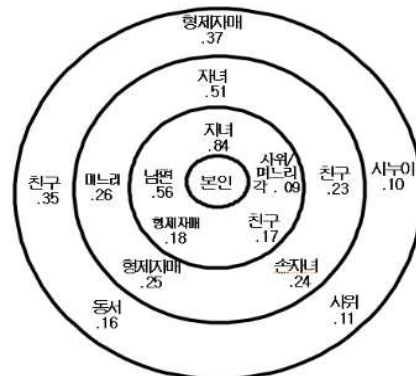


그림 6b. 60대 여성



구성원으로 친구,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사촌형제, 어머니 순으로 그리고 60대 여성은 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손자녀, 친구 순으로 보고하였다. 40대, 50대 그리고 60대 남녀의 중간원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인물은 형제자매와 친구였으나 특히 60대 남녀는 중간원 속에 공통적으로 손자녀도 포함하였다.

### 3) 외곽원 구성원

40대 남성들이 보고한 외곽원 구성원은 친구, 직장동료, 형제자매, 선후배, 장모/매형, 처형 순이었고 40대 여성들이 보고한 외곽원 구성원은 친구, 형제자매, 직장동료, 어머니/자녀/시누이 그리고 이웃 순이었다. 50대 남성들이 보고한 외곽원 구성원은 친구, 형제자매, 직장동료, 선후배, 어머니 순이었고 50대 여성의 외곽원 구성원은 친구, 형제자매, 조카, 직장동료/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동서 순이었다. 또한 60대 남성의 외곽원 구성원은 친구, 형제자매, 직장동료, 교인, 며느리/이웃 순이었

고 60대 여성의 외곽원 구성원은 형제자매, 친구, 동서, 사위, 시누이 순이었다. 60대 여성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남녀 그리고 60대 남성의 외곽원 구성원은 공통적으로 친구, 형제자매, 직장동료를 포함하였고 남성들과 비교하여 여성들은 외곽원에 친인척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3. 내부원 구성원들의 애착기능에서의 차이

내부원이 애착관계를 나타낸다면,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애착의 4가지 기능 즉, 근접추구 기능,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및 안전기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4가지 애착기능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내부원에 포함된 인물이라면, 내부원은 애착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5, 6, 7은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그리고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인물을 차례로 제시한다. 네가지 애착기능을 하

표 4. 근접추구 기능 인물의 빈도(%)

40대	남	배우자 32(64)	자녀 13(26)	친구 5(10)			
	여	배우자 17(32.7)	자녀 25(48)	친구 5(9.6)	형제자매 1(1.9)	없음 4(7.7)	
50대	남	배우자 31((57.4)	자녀 6(11.2)	친구 16(29.6)	어머니 1(1.9)		
	여	배우자 24(47.1)	자녀 8(15.7)	친구 17(33.3)	형제자매 2(4.0)		
60대	남	배우자 33(64.7)	자녀 6(11.8)	친구 9(17.6)	어머니 1(2.0)	손자녀 1(2.0)	없음 1(2.0)
	여	배우자 12(21.1)	자녀 14(24.6)	친구 19(33.4)	형제자매 5(8.8)	어머니 2(3.5)	손자녀 2(3.5)

표 5. 안전한 피난처 기능 인물의 빈도(%)

40대	남	배우자 37(74)	자녀 3(6)	친구 7(14)	하나님 1(2.0)	없음 2(4.0)		
	여	배우자 22(42.3)	자녀 7(13.4)	친구 11(21.1)	형제자매 3(5.7)	어머니 1(1.9)	하나님 2(3.8)	없음 6(11.5)
50대	남	배우자 33(61.1)	자녀 4(7.4)	친구 14(25.9)	어머니 3(5.6)			
	여	배우자 22(43.1)	자녀 7(13.7)	친구 15(29.5)	형제자매 7(13.7)			
60대	남	배우자 31(60.8)	자녀 9(9.8)	친구 11(21.6)	형제자매 2(4)	어머니 1(2.0)	술 1(2.0)	
	여	배우자 12(21.1)	자녀 19(33.3)	친구 15(26.3)	형제자매 3(5.3)	어머니 2(3.5)	며느리/ 목사 각2(3.5)	시아머니/ 하나님 각 1(1.8)

표 6. 분리저항 기능 인물의 빈도(%)

40대	남	배우자 26(52)	자녀 20(40)	친구 1(2.0)	어머니 1(2.0)	없음 2(4.0)		
	여	배우자 15(28.9)	자녀 32(61.6)	친구 2(3.8)	어머니 1(1.9)	하나님 없음 2(3.8)		
50대	남	배우자 32(59.3)	자녀 15(27.8)	친구 5(9.3)	어머니 1(1.8)	손자녀 1(1.8)		
	여	배우자 29(56.8)	자녀 19(37.2)	친구 1(2.0)	어머니 1(2.0)	손자녀 1(2.0)		
60대	남	배우자 47(92.2)	자녀 2(3.8)	어머니 2(3.8)				
	여	배우자 18(31.6)	자녀 22(38.5)	친구 9(15.7)	형제자매 3(5.2)	어머니 2(3.6)	시아머니/ 며느리/손자녀 각 1(1.8)	

표 7. 안전기지 기능 인물의 빈도(%)

40대	남	배우자 35(70)	자녀 2(4.0)	친구 1(2.0)	형제자매 6(12)	아버지/ 하나님 각 (2.0)	없음 4(8.0)
	여	배우자 37(71.2)	자녀 6(11.6)	친구 1(1.9)	어머니 2(3.8)	하나님 2(3.8)	없음 4(7.7)
50대	남	배우자 37(68.5)	자녀 2(3.7)	친구 7(13)	형제자매 2(3.6)	어머니 5(9.3)	처제 1(1.9)
	여	배우자 44(86.0)	자녀 2(4.0)	친구 1(2.0)	형제자매 1(2.0)	어머니 2(4.0)	시아버지 1(2.0)
60대	남	배우자 39(76.4)	자녀 6(11.8)	친구 2(3.9)	형제자매 2(3.9)	어머니 1(2.0)	목사님 1(2.0)
	여	배우자 28(49.1)	자녀 18(31.6)	친구 6(10.5)	형제자매 2(3.5)	어머니 2(3.5)	며느리 1(1.8)

는 인물은 공통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및 친구를 포함하였고 형제자매와 어머니는 낮은 빈도로 언급되는 인물이었다. 분명한 것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어머니는 주로 내부원에 포함되는 인물이므로 내부원은 애착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와 자녀를 응답한 비율이다. 배우자와 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면 친구와 형제자매 및 어머니를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배우자와 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40대 남성과 50대 남성 및 여성 그리고 60대 남성은 근접 추구 인물로서 배우자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40대 여성은 자녀를 그리고 60대 여성은 친구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에 제시된 안전한 피난처의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는 60대 여성만이 자녀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40대와 50대 남녀 그리고 60대 남성들은 배우자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표 6에 의하면, 분리저항 인물로서는 4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자녀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배우자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안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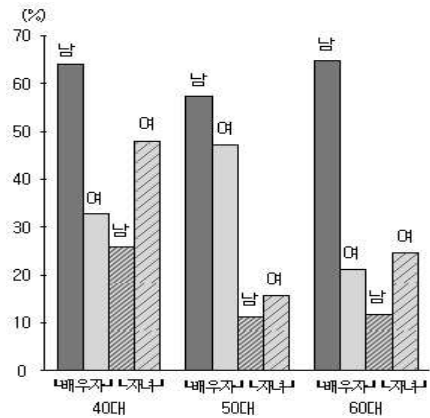


그림 7. 근접추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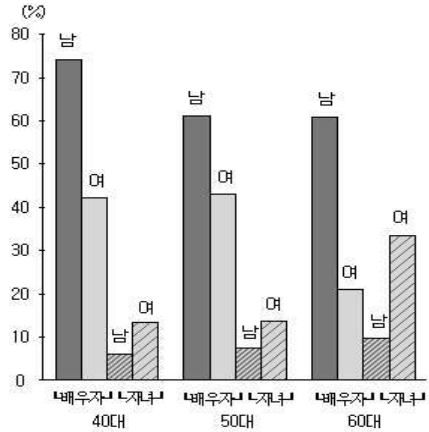


그림 8. 안전한 피난처 기능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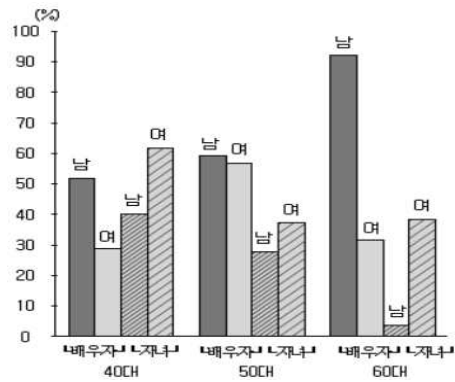


그림 9. 분리저항 기능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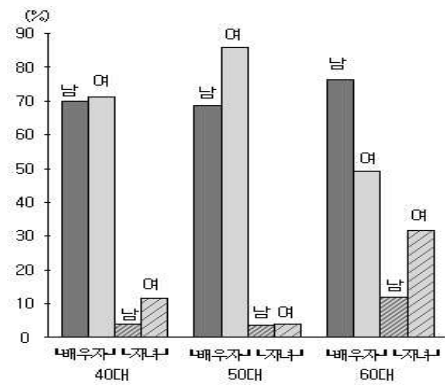


그림 10. 안전기지 기능 인물

지 기능을 하는 인물은 표 7과 같이 모든 응답자들이 배우자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배우자와 자녀를 선택한 비율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7, 8, 9, 그리고 10과 같다.

또한 40대 남성의 30%(15명)와 40대 여성 13%(7명), 50대 남성의 33%(18명)와 50대 여성의 18%(9명) 그리고 60대 남성의 39%(20명)와 60대 여성의 12%(7명)가 네 가지 애착기능 즉 근접추구, 안전한 피난처, 분리저항 그리고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 모두 배우자를 보고하여 남성들의 배우자 선택비율이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 $\chi^2(1)=16.893, p<.001$ ). 또한 40대 남성 중 1명은 네 가지 애착기능 인물로서 아들을 보고하였고, 40대 여성 중에는 전부 딸을 보고한 사람과 전부 아들을 보고한 사람이 각 1명씩 있었다. 또한 50대 남성의 9%(5명)는 전부 친구를 보고하였고 50대 여성 중에는 전부 친구를 보고한 사람과 전부 아들을 보고한 사람이 각 1명씩이었다. 그러나 60대 여성의 14%(8명)가 전부 딸을 보고하여 전부 배우자(12%)를 보고한 비율보다 더 높았고 11%(6명)는 전부 친구를, 4%(2명)는 전부 어머니를 그리고 전부 아들, 언니, 여동생 그리고 며느리를 보고한 사람도 각 1명씩 있어 60대 여성은 배우자보다는 자녀나 친구 혹은 형제자매들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애착대상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 4.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 수와 생활만족의 관계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수를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내부원,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에 포함된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수는 3부터 30까지 범위하였으므로 누적 백분율을 기초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누적 백분율 56.6%는 호위대 구성원 수가 9명이었으나 여기에 36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8명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함으로써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 수가 3명에서부터 8명까지는 호위대 구성원 하집단으로 그리고

표 8. 연령집단과 호위대 크기 상하집단에 따른 생활만족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연령집단	호위대 크기	N	M(SD)
40대(a)	상	60	13.57(4.409)
	하	42	12.98(4.486)
	40대 전체	102	13.32(4.428)
50대(b)	상	65	14.03(3.905)
	하	40	12.95(4.920)
	50대 전체	105	13.62(4.329)
60대(c)	상	48	17.06(4.412)
	하	60	13.55(3.998)
	60대 전체	108	15.11(4.521)
전체	상	173	14.71(4.454)
	하	142	13.21(4.395)
	전체	315	14.03(4.483)

표 9. 연령집단과 호위대 크기 상하집단에 따른 생활만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	F값	Eta squared	Tukey 사후 검증
연령집단	259.252	2	129.626	6.967***	.043	c>a, b
호위대 구성원 상하집단	227.028	1	227.028	12.202***	.038	
연령집단*호위대 상하집단	127.103	2	63.551	3.416*	.022	
오차	5749.210	309	18.606			
전체	6310.616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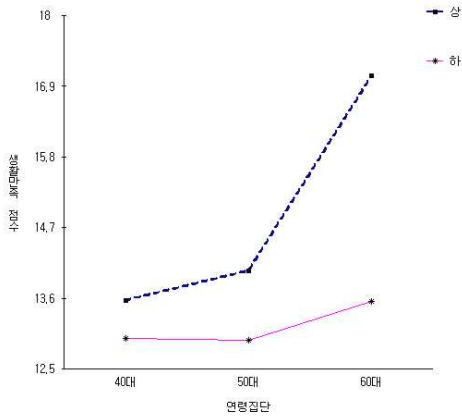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집단과 호위대 상하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9명부터 30명까지는 호위대 구성원 상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 모두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연령집단(40대, 50대, 60대)과 호위대 구성원 전체수(상하집단)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활만족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연령집단과 호위대 구성원의 상하집단에 따른 생활만족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9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이원변량분석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집단의 주효과( $F(2,309)=6.967, p<.001$ )와 호위대 상하집단의 주효과( $F(1,309)=12.202, p<.001$ ) 그리고 연령집단과 호위대 상하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F(2,309)=3.416, p<.05$ )가 모두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60대가 40대 및 50대보다 더 큰 생활만족 점수를 얻고 40대와 50대의 생활만족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60대가 4,50대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호위대 크기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더 큰 생활만족 점수를 나타내어 호위대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

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림 11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60대에서만 호위대 상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t(106)=4.333, p<.001$ ). 즉 60대에서만 호위대 구성원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성인들 중에서 호위대 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중년기의 애착관계와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고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46세부터 65세까지의 중년기 남녀(남: 155명, 여: 160명)를 세 개의 연령집단(40대, 50대, 60대)으로 구분하고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통해 호위대 모델의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크기(포함된 사람의 수)와 구성원들을 측정하고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호위대 모델의 내부원 구성원들은 애착의 고유기능인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및 안전기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호위대 모델의 전체 크기(포함된 사람의 전체 수)는 생활만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연구결과 40대나 50대와 비교하여 60대 성인들이 가장 적은 수의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고, 40대 남성들은 40대 여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내부원, 중간원 및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50대 남성들은 50대 여성들보다 더 적은 수의 중간원과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남성들은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모두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 구

성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 반면, 여성들은 40대와 비교하여 50대에 증가하고 60대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 구성원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내부원 구성원으로 40대와 50대 남녀는 공통적으로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하고 그 외에 형제자매나 친구를 포함하였으나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손자녀도 내부원에 포함되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남성은 배우자, 자녀, 어머니를 포함하고 아버지 대신 손자녀를 포함하였으나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 친구나 사위 혹은 며느리를 포함하였다. 내부원 속에 손자녀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여성은 50대였고 남성은 60대였다. 중간원은 남녀 공통적으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형제자매와 친구를 포함하였고 40대 남성과 50대 남녀는 직장동료도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어머니나 아버지, 장모, 시어머니, 손자녀를 포함하였다. 외곽원도 친구와 형제자매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였고 60대 여성을 제외하고 직장동료도 외곽원의 구성원들이어서 중간원의 구성원과 비슷하였으나 그 외에 선후배와 이웃, 시어머니, 장모, 매형, 사위, 시누이, 동서 등 다양한 친인척도 포함하여 중간원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외곽원에 더 많은 친인척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부원의 구성원들이 애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및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은 남녀 구별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친구였으며, 형제자매와 어머니도 애착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내부원은 애착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네 가지 애착기능 인물로서 자녀를 선택한 비율은 일관성 있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아

여성들은 자녀지향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전기지 인물로서는 모든 연령에서 배우자를 보고하여 배우자는 중년의 성인들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였다. 흥미롭게도 40대 여성은 근접추구와 분리저항 인물로서 그리고 60대 여성은 근접추구와 분리저항 및 안전한 피난처로서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60대 여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근접추구 인물로서 자녀보다 친구를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친구는 60대 여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근접추구 인물이었다. 또한 60대 여성들은 근접추구 인물로서 시어머니, 며느리, 손자녀, 하나님, 목사님 등 다양한 인물들을 보고하여 배우자 외에 자녀나 친구, 형제자매 혹은 다양한 친인척, 심지어 종교관련 인물들까지도 중요한 애착대상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호위대 전체 크기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60대 성인들은 가장 작은 크기의 호위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0대 성인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였고, 60대 성인들 중에서는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사람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의 예상대로 60대 성인들은 40대나 50대 성인들보다 더 적은 수의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Antonucci와 Akyama 및 Takahashi(2004)의 연구결과는 물론 Carstensen(1998)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과도 일치하였다.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의하면, 중년기 이후부터 각 개인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의 접촉을 감소시키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정서적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하므로 노년기를 바라보고 있는 60대 성인들은 4,50대 성인들보다 호위대 모델 속에 더 적은 수의 구성원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40대 남성들은 40대 여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내부원, 중간원 및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고 50대 남성들은 50대 여성들보다 더 적은 수의 중간원과 외곽원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원에서만 성차가 있다는 Antonucci 등(2004)의 연구나 외곽원에서만 성차가 있다는 장휘숙(2006a)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장휘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중년 성인들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Antonucci 등의 연구와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40대의 한국 여성들은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자녀에게 강한 근접추구와 분리저항 경향을 나타내고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남성들보다 더 적은 수의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구성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50대 여성들은 자녀들의 성장으로 다른 친인척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역할에 몰두해야 하는 남성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수의 중간원과 외곽원의 구성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대로 중년 성인들도 내부원 속에는 배우자,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Antonucci 등(2004)의 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아버지, 손자녀, 며느리, 사위도 내부원 속에 포함하고 있었고 중간원과 외곽원 역시 Antonucci 등의 연구와 유사하게 친구와 형제자매를 포함하면서도 그 외에 직장동료, 시어머니, 며느리, 장모, 손자녀, 사위, 시누이, 동서 등 더 많은 친인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중년 성인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중년 성인들보다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에 더 많은 수의 구성

원을 포함함으로써 더 큰 호위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사회보다 더 대가족지향적임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세 개의 동심원 어디에도 아버지를 포함하지 않은 Antonucci 등의 연구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40대와 50대 남녀의 중요한 내부원 구성원이어서 아버지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Kahn과 Antonucci(1980)의 주장대로 애착관계임이 분명하였다. 대표적인 내부원 구성원들인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들은 Hazan과 Zeifman(1994)이 제안한 네 가지 애착기능 즉 근접추구, 안전한 피난처, 분리저항, 그리고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인물들이었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40대 여성들은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를 좋아하고 자녀와 떨어져 있기를 더 싫어하지만 40대 여성들도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들 때 혹은 항상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자녀보다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아 배우자는 중요한 애착대상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60대 여성들의 경우에도 자녀는 근접추구와 분리저항은 물론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대상이었지만,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인물은 자녀보다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흥미롭게도 60대 여성들은 네가지 애착기능을 하는 인물로서 전부 배우자를 보고한 비율보다는 전부 딸을 보고한 비율이 더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녀관계는 더 가까워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고(Fingerman, 2001), 그 외에 전부 친구, 어머니, 형제자매, 아들, 며느리를 보고한 사람도 있어 60대 여성들의 애착대상인물은 배우자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유능한 관계형성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감소나

실망 때문일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남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되게 호위대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였다. 비록 4,50대 성인들보다 더 적은 수의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구성원들을 갖는 60대 성인들이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였지만, 60대 성인들 내에서도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수가 더 많은 집단이 더 적은 집단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여 생활만족과 호위대 크기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였다. 물론 호위대 구성원의 전체수가 더 많다고 하여도 평균적으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호위대 구성원으로 지명되고 대부분이 친인척들이라는 사실은 중년기 동안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애착인물의 기능만을 연구하고 각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을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호위대 모델의 크기와 애착의 질적 특성을 비교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Antonucci, Akiyama & Takahashi, 2004) 프랑스, 독일 및 네델란드(Antonucci, Fuhrer & Dartigues, 1997; Baltes & Mayer, 1999; Knipscher & Antonucci, 1990)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호위대 모델이 애착관계를 포함하여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호위대 모델이 성인애착 질문지(Collins & Read, 1990; Griffin & Bartholomew, 1994)나 성인 애착면접(George, Kaplan, & Main, 1996)과 같은 기존의 애착 측정방법을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을 것이다. 물론 더 큰 의의는 다른 발달단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중년기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장휘숙 (2006a).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76-277.
- 장휘숙 (2006b). 성인심리학: 성인발달, 노화, 죽음. 서울: 박영사.
- Antonucci, T. C.,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 Antonucci, T. C., Fuhrer, R., & Dartigues, J. F. (1997). Soci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community dwelling French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1), 189-195.
- Baltes, P. B., & Mayer, K. U. (1999).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arstensen, L. L. (1998).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 644-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ingerman, K. L. (2001). *Aging mothers and their adult daughters: A study in mixed emotion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3rd e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51-177). London: Jessica Kingsley.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 Knipscheer, K., & Antonucci, T. C. (Eds.). *Social network research: Methodological questions and substantive issues*.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1차 원고 접수: 2011. 01. 06

수정 원고 접수: 2011. 02. 07

최종 게재 결정: 2011. 02. 08

# Close Social Relationships on the based of Convoy Model in Middle Aged Korean Adult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and its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s in the middle age, convoy model was used through interview with 315 middle aged men and wome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forties, fifties, sixties). In the convoy model distinguishing three levels of closeness, sixties had smallest inner, middle and outer circles and forties and fifties had significant sex differences in the size of convey. Interestingly partner, children, mother and father were included in the inner circle, and sibling, friends, co-workers were included in the middle and outer circle. Outer circle had more various relatives than middle circle. As partner, children and friend were members of inner circle, inner circle was obvious to represent attachment relationships. In addition sixties had more life satisfaction than forties and fifties and sixties with larger convoy than smaller convey.

*Keywords: social relationships, attachment, convoy model, life satisfaction*